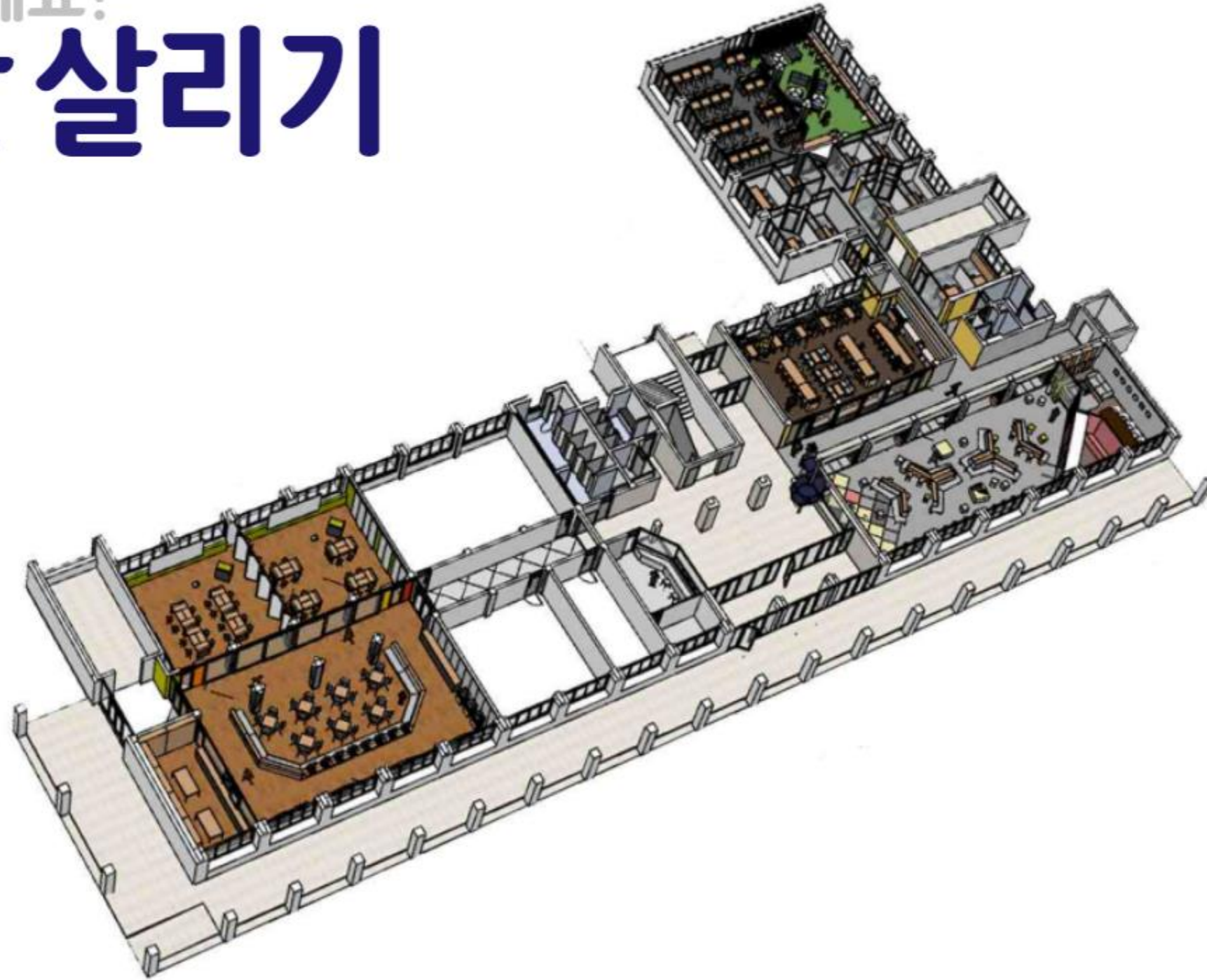


IC-PBL 경진대회

경상관 1층 왜 이용 안 해요?

경상관 공간 살리기



우루왁끼
김유나 송채연 윤지윤

목차

1 상황 인식

2 문제 정의

3 문제 분석

4 해결책 제시 및 적용하기

Preview: 시나리오

2016년, 한양대학교ERICA 경상관은 1층 공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끝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리모델링 직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외부 카페 대신 경상관 1층 공간에서 개인 공부도 하고 공연, 토크, 세미나 진행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나, 현재는 1층 공간의 활용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학생들이 오래 머물게 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자 했던 경상관의 리모델링 목표는 현재 만족되어 있지 않다.
특히, PBL 강의실과 So What 공간의 이용률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다시 경상관 1층을 활기찬 공간, 학생들이 머물고자 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경상관 1층, 특히 PBL 강의실 및 So What 공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상황 인식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시설 이용 제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 및 교통 통제 안내** (2020.04.09.)

나. 내용

1) 도서관 : 열람실만 운영
휴게실, 라운지, 그룹스터디룸 등 폐쇄

2) 체육시설 폐쇄 및 사용제한

- 농구장(예체능대, 디자인대, 창의인재원)
- 풋살장(예체능대, 창의인재원)
- 테니스장(수업만 허용)

폐쇄

**3) 라이온스 홀 잔디밭, 도서관 잔디밭
호수공원 출입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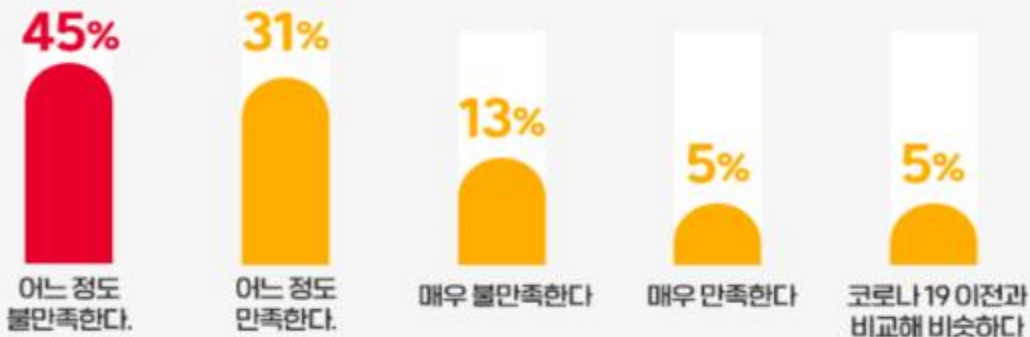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멈추면서 대학도 이를 피해 갈 수는 없었음
학교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등 캠퍼스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채로 2 년이라는 시간이 흐름

상황 인식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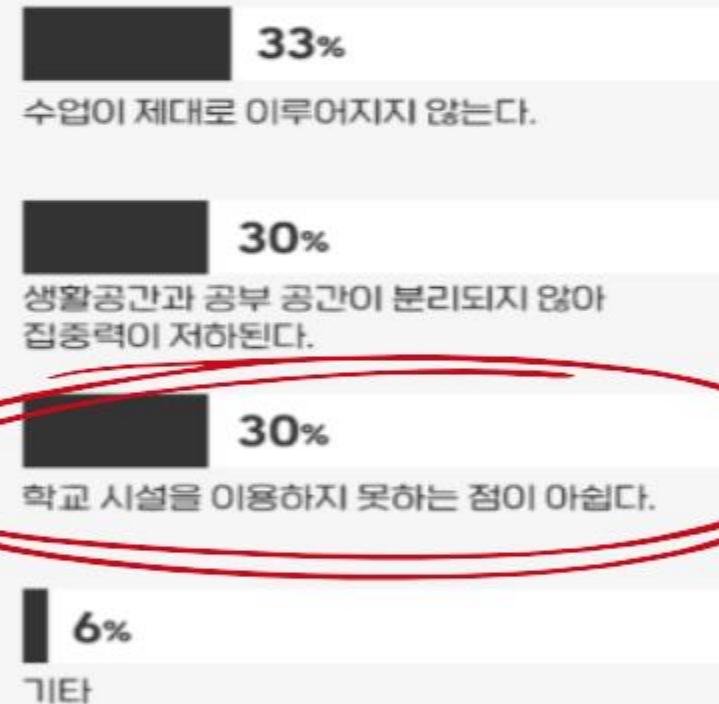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시설 이용 제한

대학 생활
코로나19로 나의 대학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 코로나19 시대,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하다고 답변한 이유는?



출처 : SKT Insight, '코로나19 시대, 대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탄', <https://news.sktelecom.com/123940>

SKT Insight가 T프렌즈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코로나 19로 변화된 대학 생활에 불만족
그 이유 중 하나는 학교 시설 이용 제한

T프렌즈 : 'SK텔레콤과 20대를 연결하는 SK 공식 대학생 대외활동

상황 인식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시설 이용 제한

일상으로 돌아오고는 있지만

현저하게 줄어든 텀프로젝트, 단계적으로 풀리는 거리두기로 인해 이용가능한 시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특히나 신입생들은 입학 전 혹은 입학 초기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적어 내가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상황 인식 둘

변화하는 감성적 경험의 대상



제품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한 호가든 제품. [사진=오비맥주]



경상대학 1층 사용 대상인 학생의 대부분은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초반, MZ세대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상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경상대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가치 및 트렌드 역시 변화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성적 경험의 대상에 변화가 생겼음을 인식해야 함

*“ 빠르게 변화하는 MZ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추고자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교체한다”며 디자인을 리뉴얼한 오비맥주가 생산하는 호가든,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가격보다는 취향에 맞는 제품을 소비하며 집을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MZ세대를 공략한 LG전자의 돌출 없는 창호형 에어컨 <https://www.etnews.com/20220523000098>

상황 인식 둘

MZ세대의 소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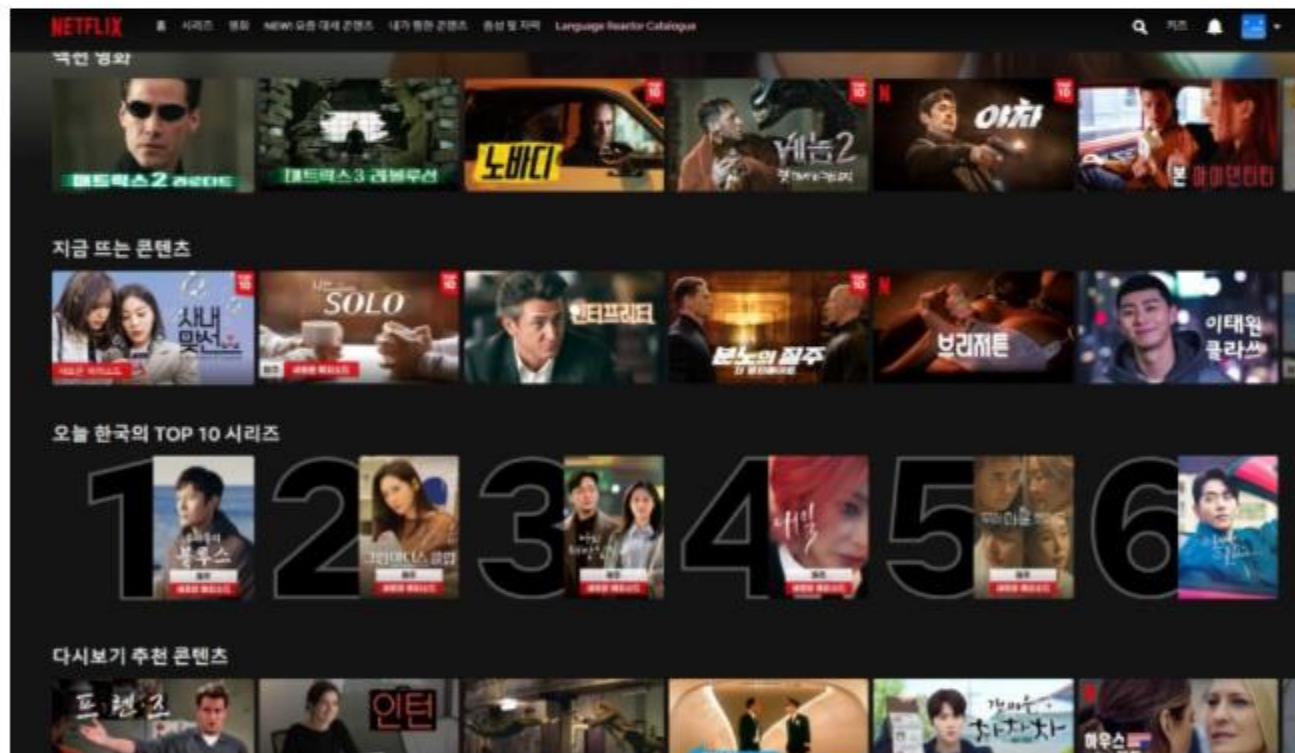


MZ세대는 디지털기기를 접하면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
온라인을 소통의 공간으로 여기고 SNS에서 개인의 선호, 관심사, 가치관이 담긴 콘텐츠를 공유하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함

상황 인식 둘

MZ세대의 소비 특성

이때, 개인의 취향, 신념 등의 주관적 기준이 MZ세대의 소비에서 중요한 가치



개인의 취향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넷플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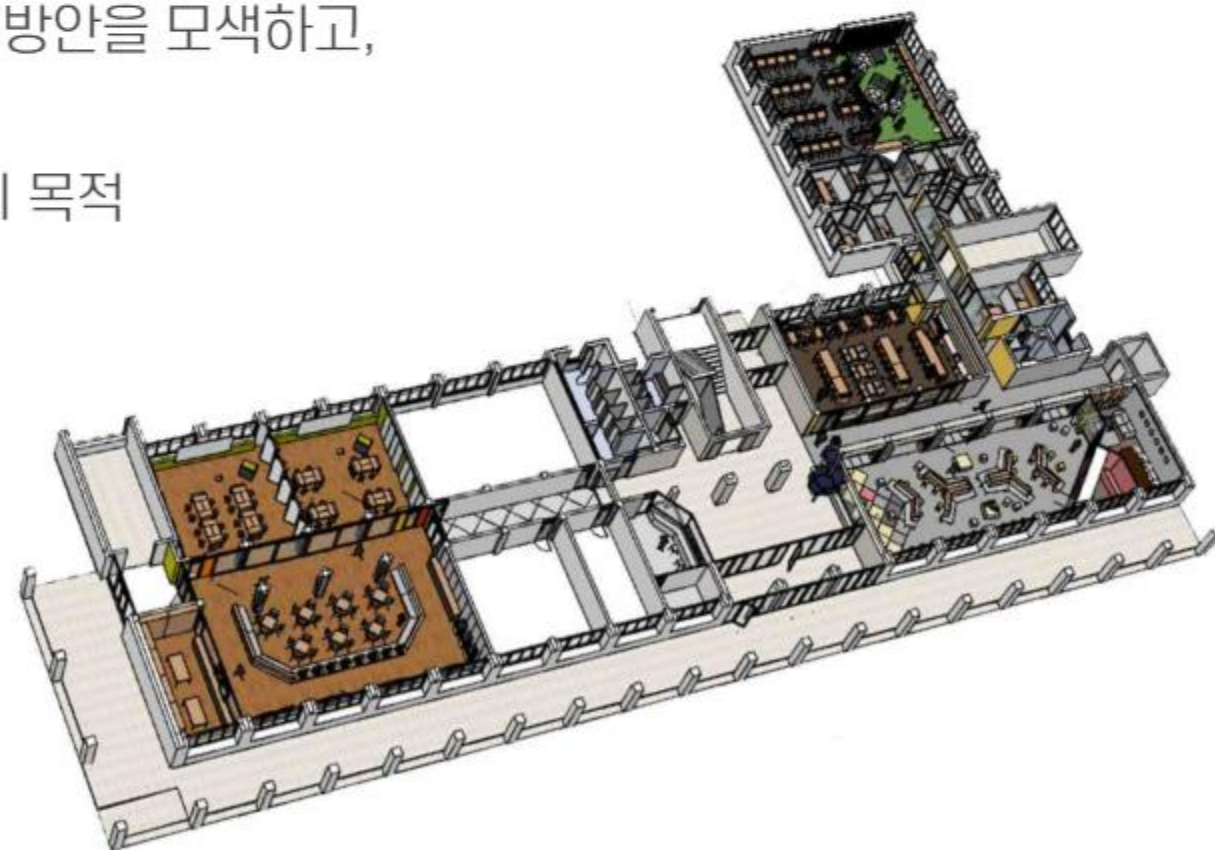


개인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도서 추천 [밀리의 서재]

문제 정의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경상관 만들기”

친구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와 가까우면서 정이 두터운 사람을 의미
경상대학 학생들이 경상관을 친구처럼 가깝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경상관
학생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상관을 만드는 것이 목적



왜 경서관 이용 안할까?

디자인?

시설 관리?

분위기?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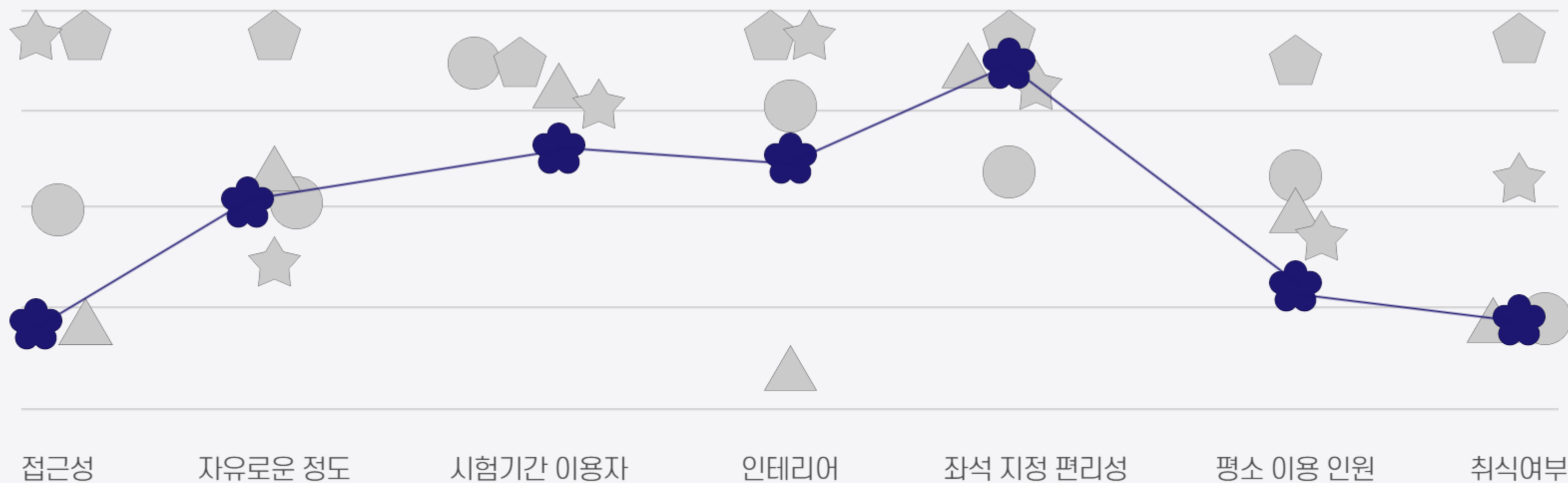
편리성?

시설 정보?

경쟁사 분석

경상관과 유사한 시설을 선정하여
전략캔버스를 통해 타 시설 대비 경상관의 문제를 알아보고자 함
현장 관찰 등을 이용하여 조사

- 경상관
- 해동
- 학술정보관
- 스터디 카페
- 카페



	경상관	해동	학술정보관	스터디카페	카페
접근성	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학교에 와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접근성을 띄지만 통학 거리가 길다면 오래 머무는 데 제약이 있음	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학교에 와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접근성을 띄지만 통학 거리가 길다면 오래 머무는 데 제약이 있음	학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건물에서나 이동이 편리함	프랜차이즈가 생길 만큼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대다수 학생의 집 근처에 스터디카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어디에나 위치해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음
자유로운 정도	공간에 따라서 많은 제약이 있는 공간이 있고 오픈 스페이스로 떠들 수 있는 공간이 있음	친구들과 조용히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	오픈 스페이스의 경우에도 분위기가 조용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음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라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하지는 못함 너무 심하면 제재하기도 함	장소도 다양하고 이야기 하기도 자유로움
시험기간 이용자	경상관에서 공부하고 바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많음	공학관에서 공부하고 바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많음	이른 아침과 저녁 늦게에만 여유있게 좌석을 예약할 수 있음	시험기간에 이용자가 많아 현재 사용자들의 잔여 시간을 확인해야 함	자리가 있는 카페를 찾아서 여러군데를 돌아야할 정도로 자리를 찾을 수 없음
인테리어	1층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타대보다 나은 설비를 갖추고 있음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 타대보다 부족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오픈 스페이스, 자율좌석 공간 등 분위기가 다른 여러 공간이 존재함	인테리어를 매우 중요시 여김 배치 되어 있는 시설이 모두 신식임	현대인의 감성에 맞는 인테리어 설계를 위한 많은 투자로 만족스러운 인테리어
좌석 지정 편리성	몽랩, 상휴, so what 등은 매우 자유롭게 이용하면 됨 제약이 전혀 없는 것이 큰 장점 그러나 팀플실 같은 경우는 예약이 번거로움	자율 좌석이기 때문에 자리만 있다면 원하는 자리에 착석 가능	키오스크나 앱을 이용해서 편리,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좌석 존재	입장 시 키오스크나 데스크에서 자리를 선택하고 들어가야 함 비가 매우 쉽게 구성되어 있어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움 그러나 선택한 좌석은 스터디카페 이용 중 이동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	자리만 있다면 원하는 자리에 착석 가능
평소 사용 인원	유동인구는 많지만 오래 머무르는 사람은 별로 없음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음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음	매우 많지는 않지만 이용자는 한번 이용하면 오래 머뭄	목적에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 인원 많음
취식 여부	불가	불가	불가	일부 가능	가능

인터뷰

전략캔버스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경상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경상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경상관은 전체적으로 조명이 어둡고 의자가 불편한 곳이 많아요.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엄숙하고 적막한 분위기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 이용을 시도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경상대는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식음료 취식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좌석에 비해 테이블이 많지 않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주로 어느 곳을 이용하나요?

카페를 자주 가고, 학교에 있을 때는 **학술정보관**이나 **학회방**을 이용해요.

왜 그곳을 이용하나요? 경상관보다 나은 점이나 차별점과 함께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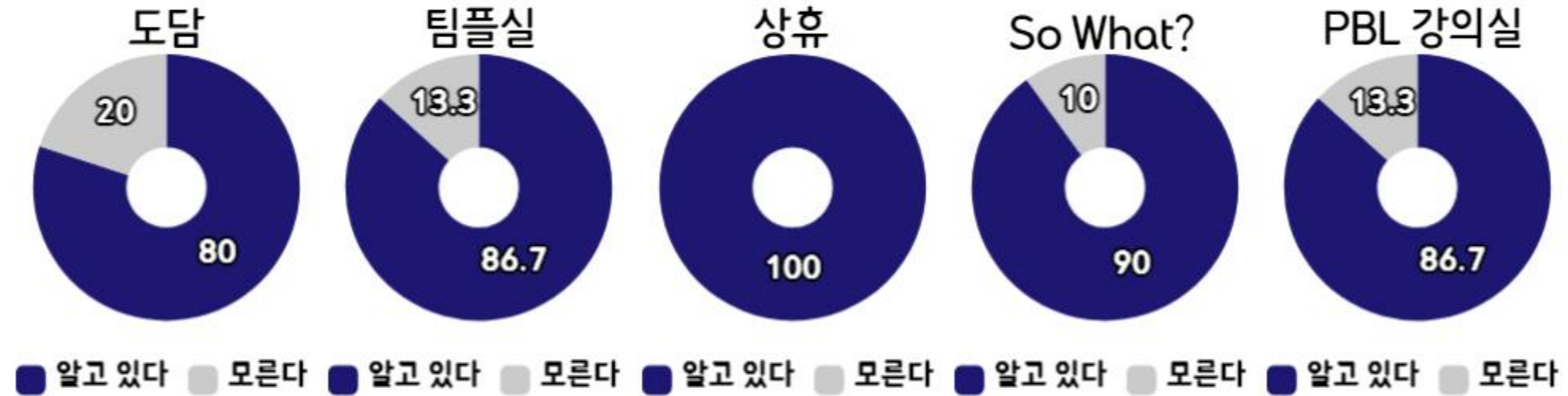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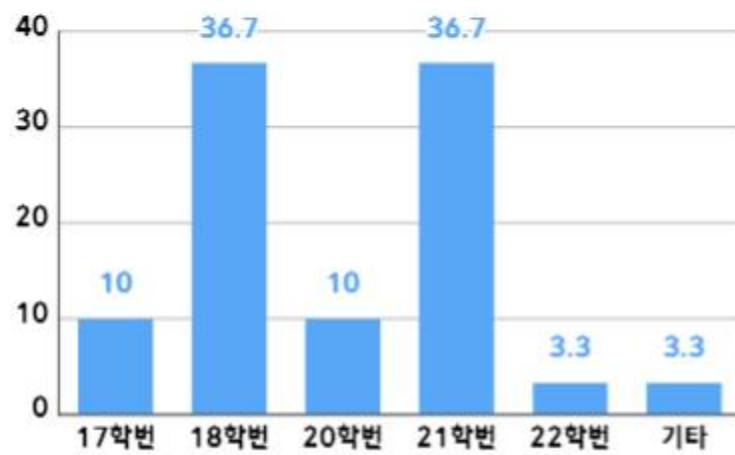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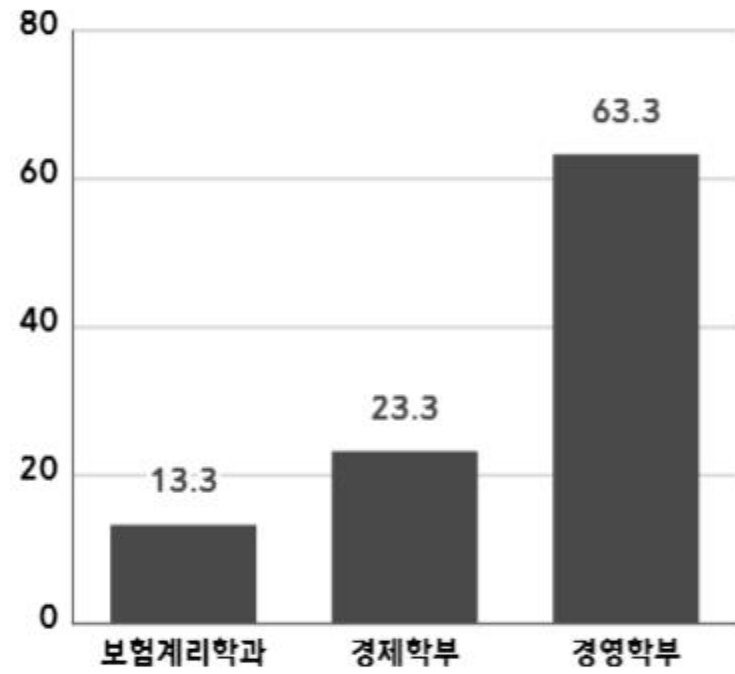
카페는 **분위기**가 좋아요. 날이 좋을 때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면 놀러가지는 못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원하는 음료와 디저트를 자유롭게 취식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경상관의 상휴처럼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아요.
꼭 혼자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요.
학술정보관의 경우는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서 동기부여가 돼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문과 벽으로 각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휴게실도 따로 있어서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무인카페가 있어 취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설문

경상대학 각 공간의 인식 정도와 이용 목적을 알아보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 실시

인식 정도



이용 경험 유무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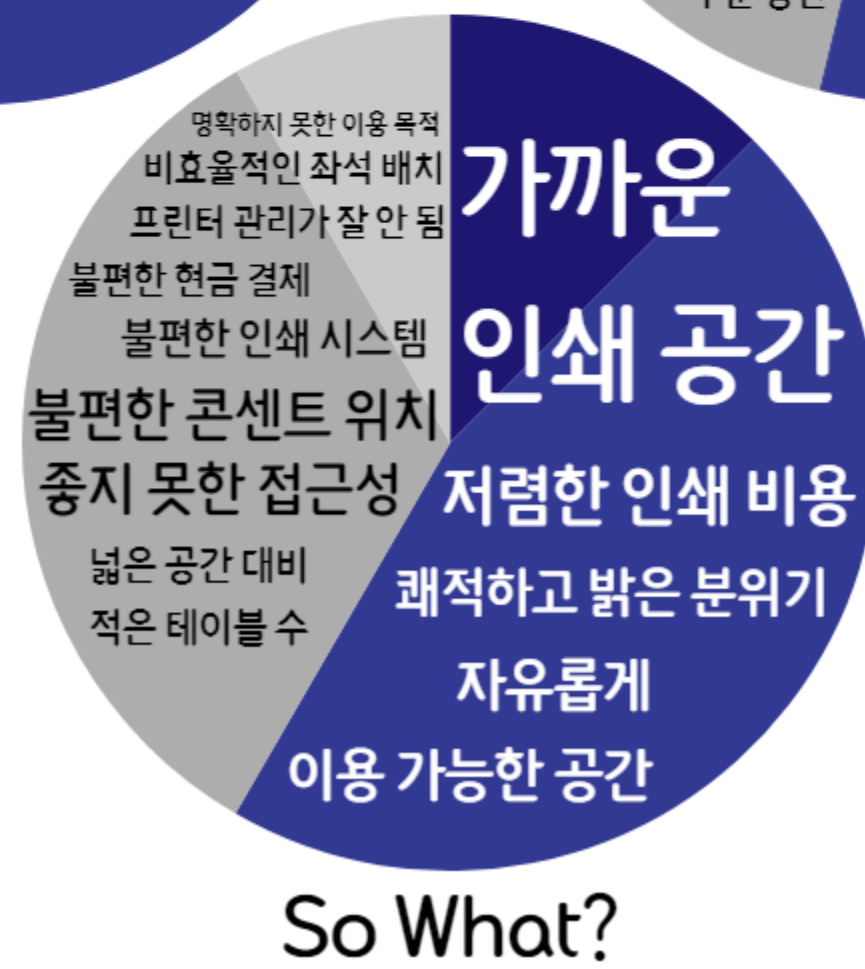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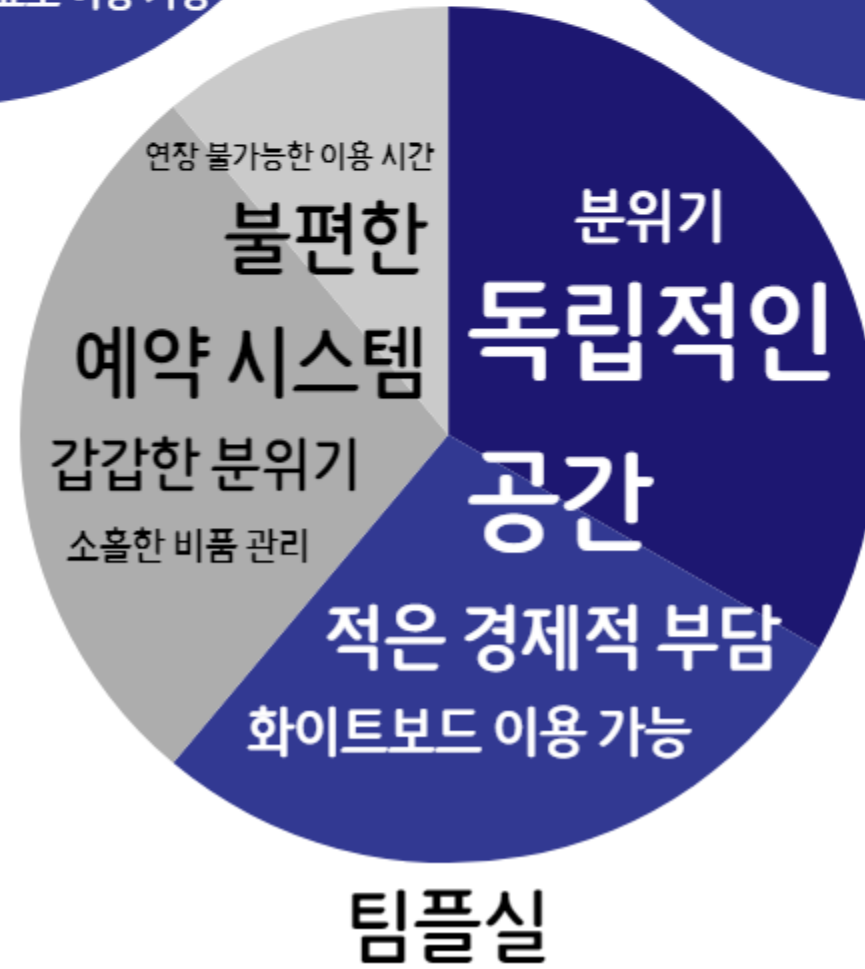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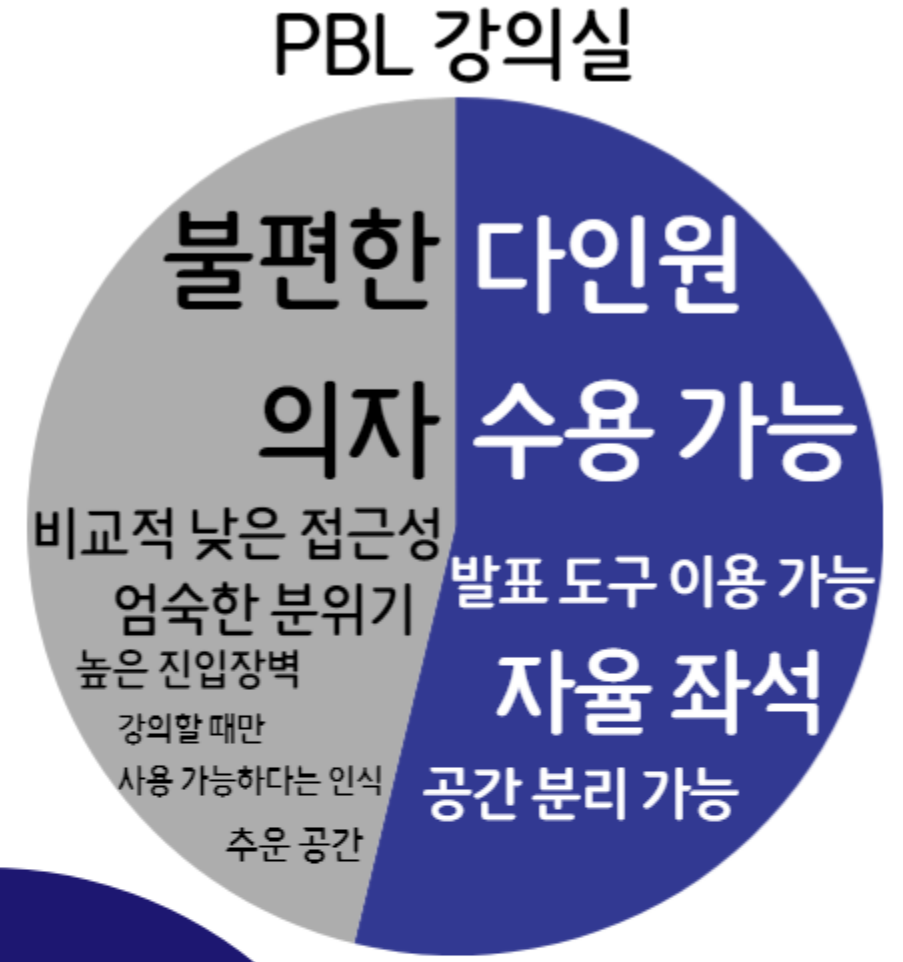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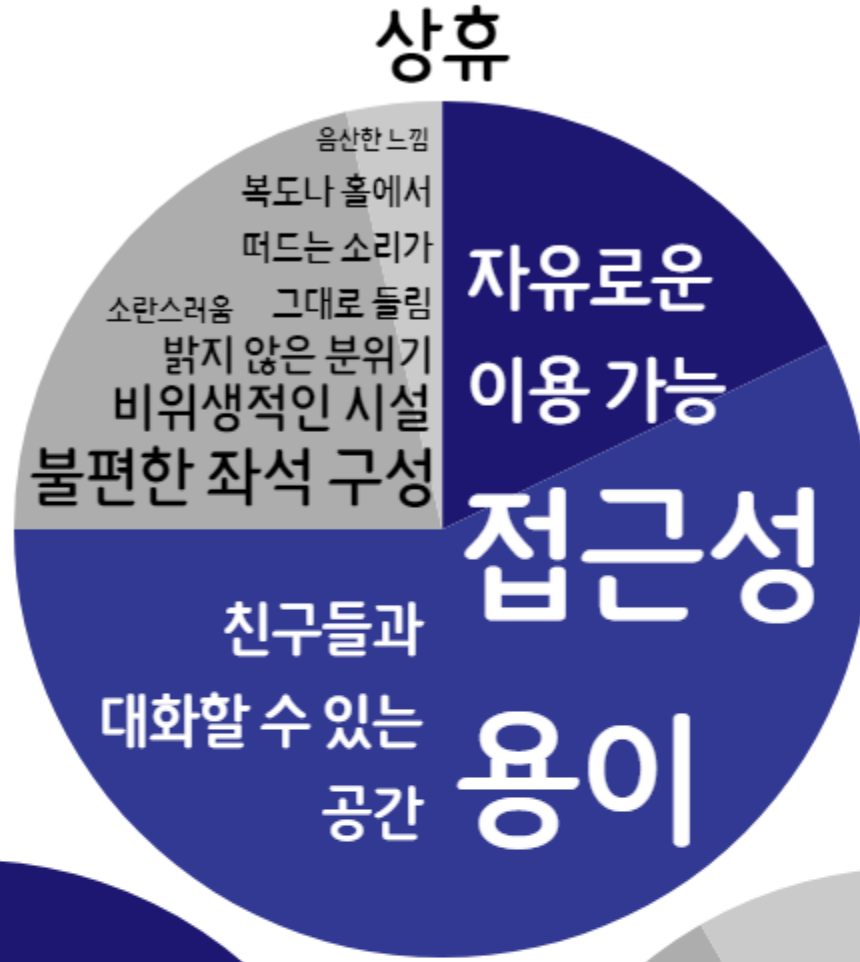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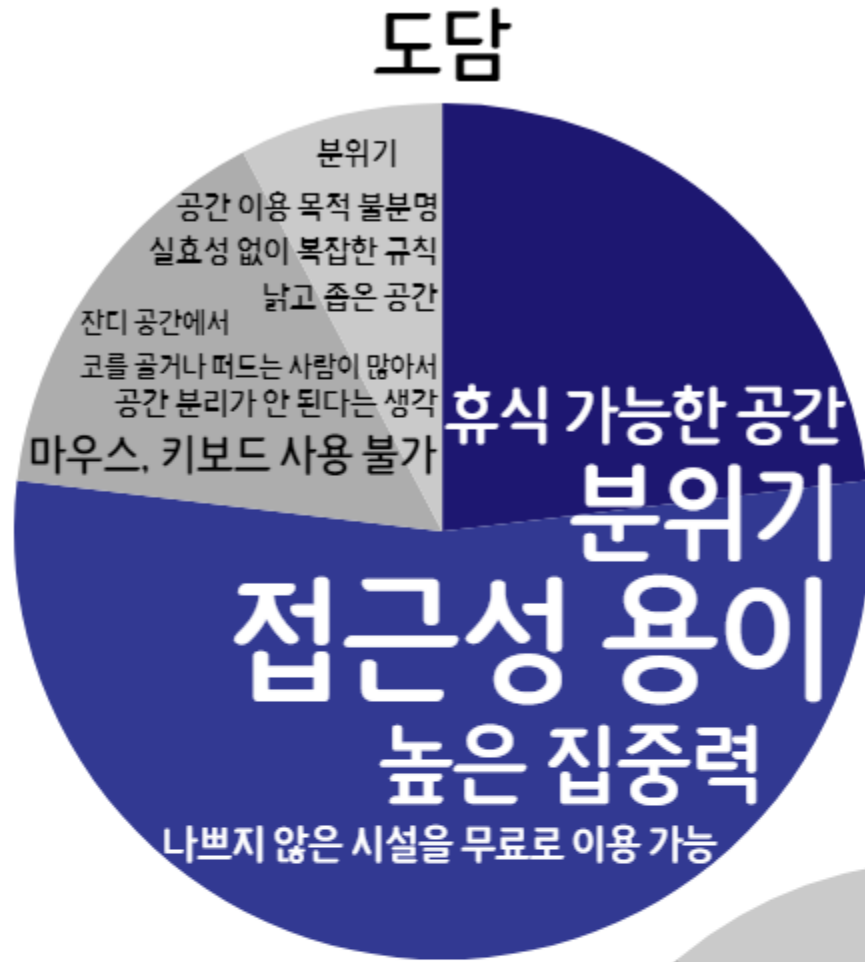
이용 빈도

도담은 53.8%의 학생이 한 달에 한 번, 38.5%의 학생이 2주에 한 번 정도 이용하며
팀플실은 44.4%의 학생이 주 1-2회, 38.9%의 학생이 한 달에 한 번 이용하며
상휴는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학생이 53.6%, 주 1-2회 이용하는 학생이 17.9%를 차지하고
So What?은 41.7%의 학생이 주 1-2회 이용, 29.2%의 학생이 2주에 한 번 이용하고
PBL 강의실은 69.2%의 학생이 한 달에 한 번 이용하고, 30.8%의 학생이 주 1-2회 이용한다고 설문에 응했다.

이용 목적과 이용 시간

도담 이용자의 100%가 **공부**를 목적으로 하며, 53.8%의 이용자가 한 번 이용할 때 1-3시간 동안 머무른다.
팀플실은 이용자의 72.2%가 **팀프로젝트**를 목적으로 이용, 83.3%의 이용자가 한 번 이용할 때 두 시간 동안 머무른다.
상휴는 50%의 이용자가 **강의 전 시간을 보내기 위해**, 39.3%의 이용자가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이용하며 이용자의 85.7%가 한 번 이용 시 1시간 미만으로 머무른다.
So What?은 이용자의 66.7%가 **강의안, 과제 등 자료 인쇄**를 목적으로 이용하며, 이용자의 75%가 1시간 미만으로 머무른다.
PBL 강의실 이용자의 53.8%가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며, 53.8%의 이용자가 한 번 이용할 때 1-3시간 머무른다.

설문



- 매우 만족
- 만족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해결책 제시

1 경상인이 공간을 인식하게 하기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각 공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용해도 되는 공간인지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확인

각각의 공간이 눈에 잘 띄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표지판 설치

또한 경상대학 입구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하나의 안내게시판 역할을 하도록 함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키오스크에서 경상대학의 지도인 '경상in'을 현재 본인의 위치와 함께 확인할 수 있음

경상대학만의 오픈스페이스를 잘 모르는 경상인들이 '잘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결책 제시

1 경상인이 공간을 인식하게 하기



코로나19 이전, 경상대학의 각 학과에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경상대 투어를 진행
해당 행사는 경상대의 각 공간에 대해 소개하고, 이용 목적과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어떤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있었음

각 학과 학생회를 주축으로 신입생이 경상대학만의 오픈스페이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상대 투어'를 꾸준히 진행
이와 동시에 경상대학 곳곳을 이용하며 빙고판을 채우는 '경상대 빙고 챌린지'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일회성으로라도 공간을 이용하게 함

해결책 제시

— 2 공간을 인식했다면, 감각적이고 이용하기 쉽게 하기

도담 – 백색소음 틀기



도담은 티플실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티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잘 들림
뿐만 아니라 도담에서 수면하는 사람의 코고는 소리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기도 함

글 쓰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들까지도 조용한 공간에서는 예민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백색소음을 틀어 공부를 방해하는 소음을 완화시켜 경상대 학생들에게 도담을 공부가 잘되는 곳으로 인식하게 하고 보다 오래 머무르게 함

해결책 제시

— 2 공간을 인식했다면, 감각적이고 이용하기 쉽게 하기



So what? – 감각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공간

'So what' 공간에서 콘센트 이용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책상을 비치
이를 통해 노트북 사용하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쉽게 만들고,
'인터넷 기반 학습 수행'이란 So what? 공간의 목적 달성



감각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공간은 학생들을 오래 머물게 할 것으로 기대

e.g.) DESKER 의 'NOTEBOOK DESK'

해결책 제시

2 공간을 인식했다면, 감각적이고 이용하기 쉽게 하기

경상관 1층 로비 - #오공완(오늘 공부 완료) 포토존 설치하기

경상관의 공간을 인식했다면 경상관을 좀 더 감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공완(오늘 공부 완료) 포토존을 경상관 로비에 설치

시험 기간이나 개인 공부를 위해 경상관의 다양한 공간에서 공부를 한 후, 공부했다는 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오공완 포토존에서 사진 찍음으로써 동기부여가 되는 동시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으며 오공완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하여 시험기간 이벤트 등 다양한 개최 가능

자신의 공부하는 일상을 공유하고 기록하며 확실한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



Instagram



innovationflow_36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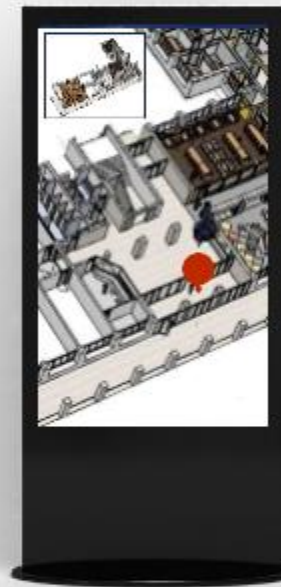
나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

#오공완 #오늘도공부완료 #오공완챌린지#내일도하자 #경상관 #한양대ERICA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제학부 #보험계리학과 #회계세무학과

해결책 제시

2 공간을 인식했다면, 감각적이고 이용하기 쉽게 하기

팀플실 - 복잡한 팀플실 예약, 키오스크 활용하자



경상관 1층 오픈스페이스 중 팀플실은 현재 네이버 카페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경상대학'을 통해 예약 후 이용 가능
2시간 기본 이용 가능하지만, 연장할 때에도 네이버 카페 이용하여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

앞서 경상관 공간 인식하기 위해 경상대학 입구에 설치한 키오스크를 활용해 팀플실 예약

팀플실을 이용해야 할 때 키오스크에서 어느 팀플실이 비었는지, 이용 가능 시간 확인하여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팀플실 예약 가능
또한 연장하고 싶을 때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연장

해결책 제시

3 경상대학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PBL 강의실 - '경상대 모꼬지' 행사 진행

학기당 1회, 경상대학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즐길 수 있는 행사인 '경상대학 모꼬지' 개최

경상인이 직접 구상하고, 기획·개최하는 콘텐츠로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교수님들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

한 학기 동안 경상대에 있었던 이슈를 공유하고 졸업생, 명사 등 학생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는 이들의 강연을 편성하여 교육적 측면도 놓치지 않는 행사

공간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간을 나누어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 진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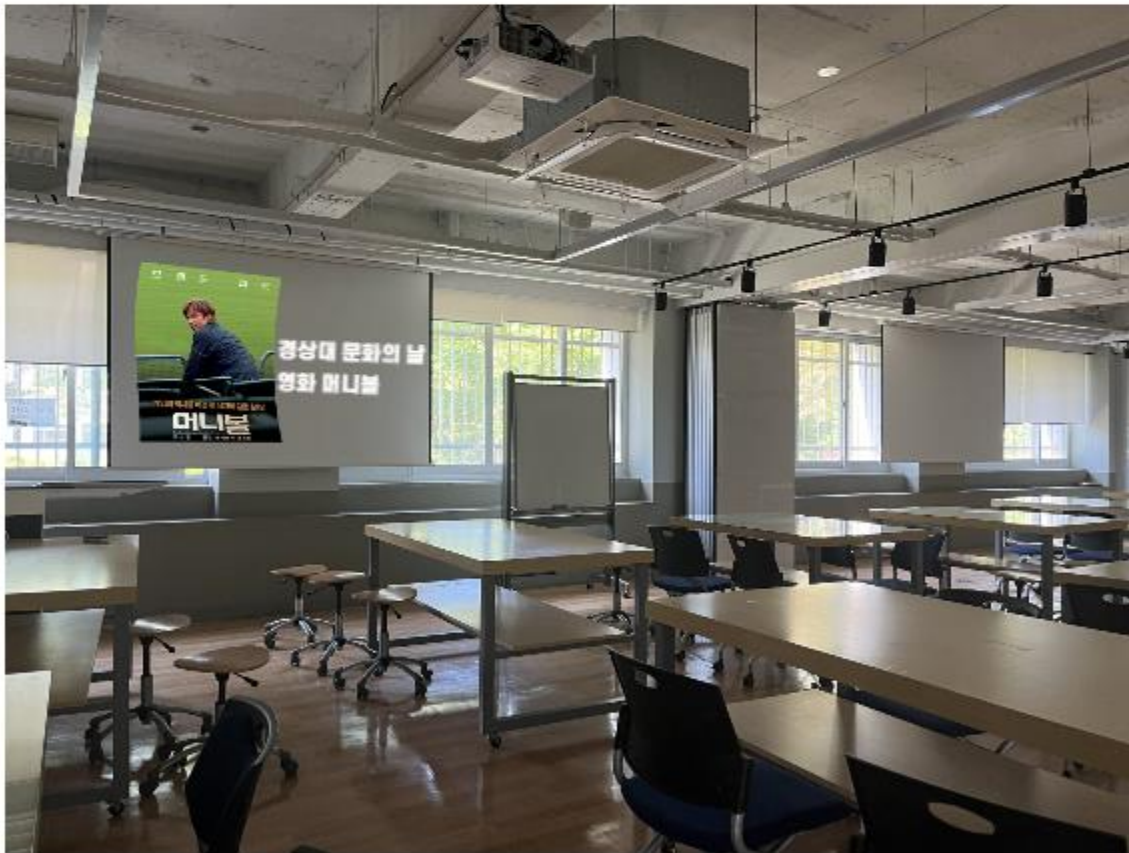
많은 학부, 학과생들에 비해 부족했던 경상대학 내의 '소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모꼬지란 놀이나 잔치 또는 그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해결책 제시

3 경상대학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상휴 & PBL 강의실 – 경상대 문화의 날



학생들이 다음 강의를 기다리며, 또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행사

상휴에서는 경상대학 소속 동아리와 학회의 정기 공연 및 발표회를 진행

이외에도 편안하면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휴의 장점을 살려 북콘서트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기에 적절

PBL 강의실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영화들을 상영하는 '무비 올 데이' 진행

학생들이 So What?을 이용하며, 강의실로 이동하며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함

자연스럽게 PBL 강의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하다는 인식을 유도

영화를 감상한 후 토론을 진행하거나,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받아 시상하는 등의 유인책을 두면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결책 제시

3 경상대학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PBL 강의실 & So What? – 학생 자유 세미나 · 학술제



학술제 개최

기존에 일반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던 경상대 학술제 발표, 평가 및 피드백 등을 PBL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더 나아가 참여자들의 결과물을 일정 기간 So What?에 전시하여 강의자료를 인쇄하기 위해 So What?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경상대 학술제를 알리는 효과 기대

학생 자유 세미나

'경상대 자유 세미나'라는 주제 하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경상대의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기획 및 참여하여 전공 관련 세미나를 열 수 있음
세미나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향상 가능
PBL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자유 세미나에서는 일반 강의실에 비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호 소통이 가능하며, 결과물과 피드백은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탐구를 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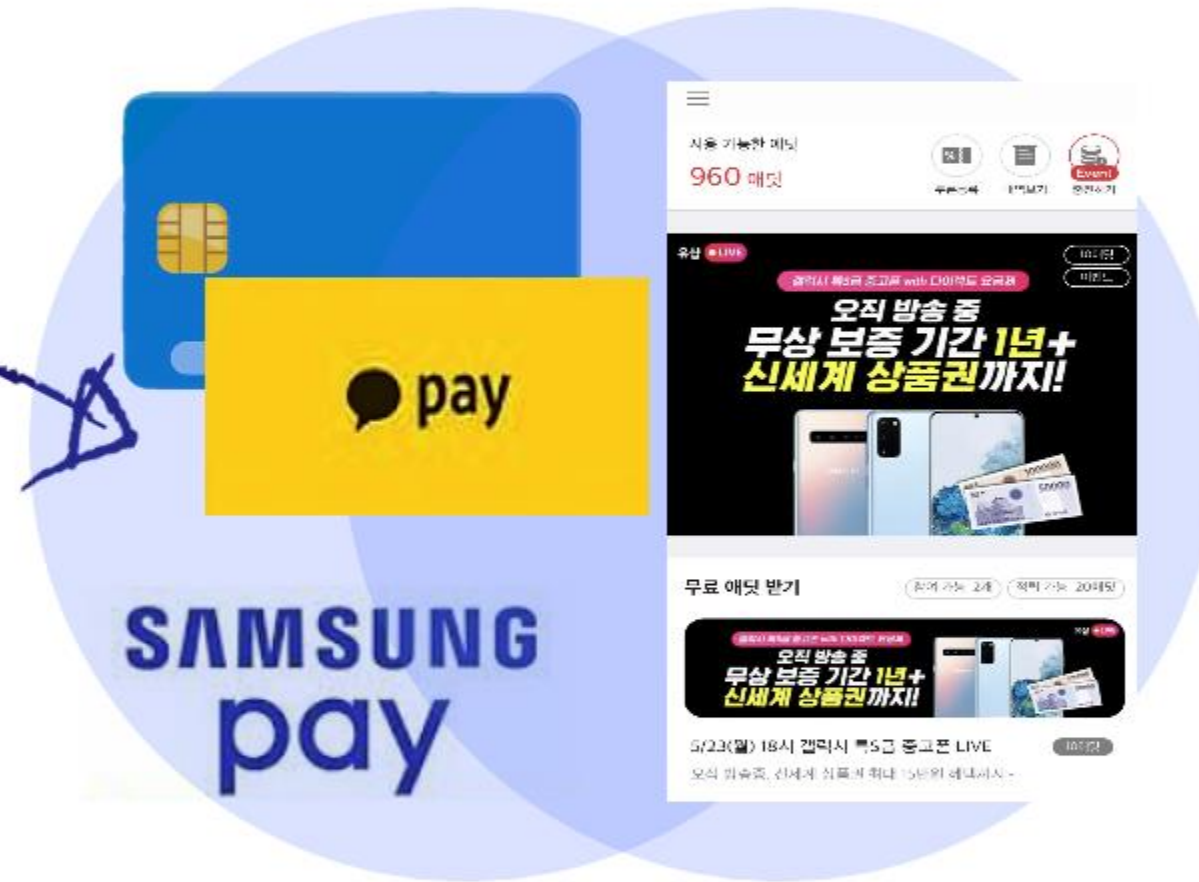
IC-PBL과 PBL 강의실 연결

IC-PBL 교과목 강의 시 해당 강의실 적극 활용
언제든 공간 분리가 가능하며, So What 공간과 이어져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강의식 수업과 팀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을 융합하고 강의 중 자유롭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함



해결책 제시

4 이용할수록 더 경제적인 경상대학 만들기 So What? - 서비스 확대



결제 방식의 다양화

So What? 공간에서 제공하는 프린트 서비스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금 결제뿐 아니라 카드 결제(앱, 카카오페이 등) 기능 추가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게 되면 현금을 인출할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함

새로운 인쇄 프로그램 도입

현재 경상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 게이트 인쇄 프로그램이 아닌 에드 투 페이퍼 도입으로 모바일로도 충전한 금액의 잔액을 알 수 있으며, 쿠폰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해결책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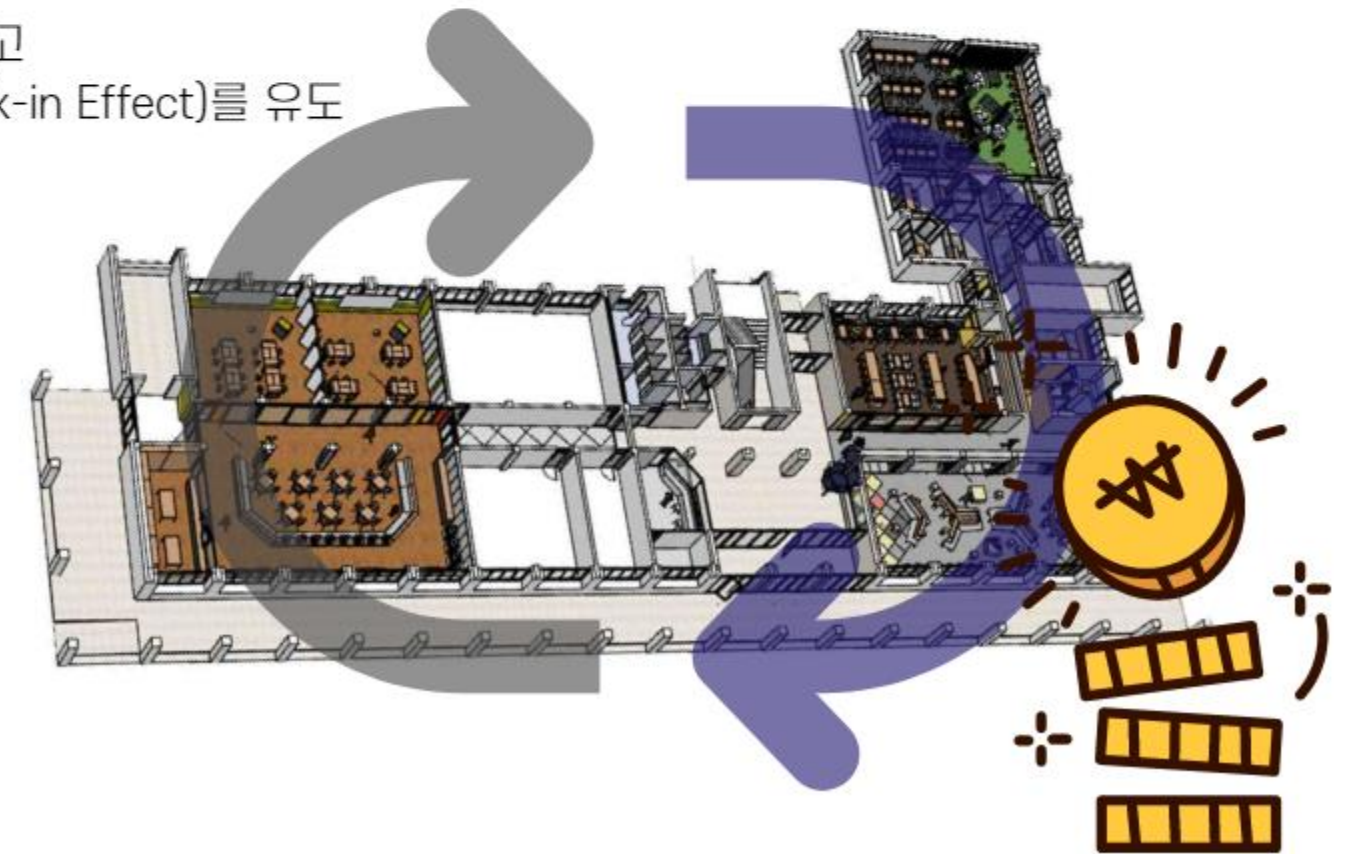
4 이용할수록 더 경제적인 경상대학 만들기 경상대 - 모든 시설을 아우르는 경상대 마일리지 제도

마일리지 제도는 경상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장려 및 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

So What?에서 프린터를 이용할 때,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텀플실을 이용할 때 등 경상관의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에 대한 비용과 시설 이용에 있어 일정 비율을 '경상대 마일리지'로 적립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는 So What?에서 인쇄를 하거나, 경상관 내 카페(舊몽랩)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경상관 이용에 대한 혜택을 마일리지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상관을 한 번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시설보다는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경상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용자 락인 효과(Lock-in Effect)를 유도



앞선 해결책들이 경상관에 적용된다면?

고찰 : VRIO 분석

V

경상대 문화의 날
감각적이며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인테리어
다양한 결제 방식

R

경상인이 직접 주도하는 양질의 세미나 및 학술제
훌륭한 면학 분위기
각 시설이 연결되어 운영되는 마일리지 제도

I

경상대의 텀플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경상관 내 시설을 이용할수록 혜택으로 돌아오는 마일리지 제도
필요한 정보를 상시 찾아볼 수 있는 컴퓨터와 해당 활동을 편하게 수행하게 돕는 책상

O

이용률이 높아진 경상대 시설들
높아지는 경상대학의 브랜드 가치
감성적 경험을 제공받는 경상인

